

경찰, 4대악 근절·서민치안 확립 무색

강·절도에 떨고 성폭력에 운다

광주·전남 상반기 강력 범죄 크게 늘어

광주·전남 경찰이 올 상반기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법식품) 등 민생 치안범죄 근절에 힘을 쏟았지만 광주·전남 상당수 지역에서 강·절도·성폭력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 10명 중 2명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근절' 구호만 외란해서야=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북부경찰 관할 지역에서만 3111건의 범죄가 발생해 5개 경찰서에서 가장 많았다.

북부경찰 관내에서는 올 상반기 135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103건)에 비해

급증했다. 모든 치안력을 동원해 벌인 '4대악 근절 활동'을 무색하게 한 셈이다. 서구의 경우 강간·강제추행(106건), 절도(1227건) 사건이 전년도(강간·강제추행 86건, 절도 1196건)에 비해 많았고 통구도 강도(7건), 강간·강제추행(60건), 절도(839건)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건위 많이 발생했다. 남부경찰 관할 지역에서는 지난해 653건 발생했던 절도 사건이 올해는 무려 898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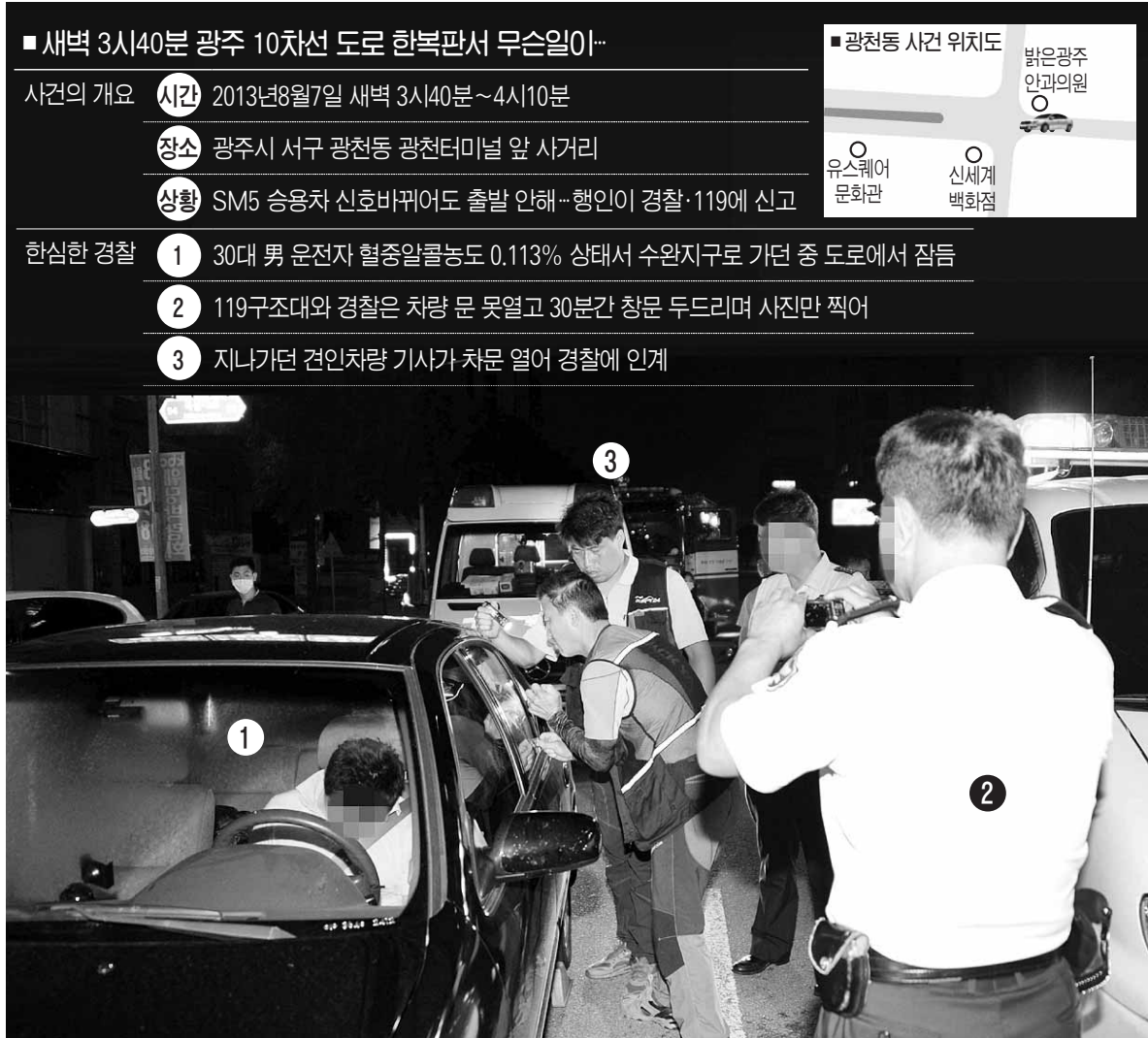
전남도 비슷하다. 목포경찰 관할 지역에서 올 상반기 발생한 5대 범죄(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해 5대 범죄(1860건)보다 437건이나 많은 수치다. 살인 사건은 5건(2012년 상반기 1건), 강도 16건(" 8건), 강간·강제추행 64건(" 34건), 절도 975건(" 800건), 폭력 1237건(" 1017건) 등 5대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 경찰

의 민생 침해 범죄 예방 활동에 의문이 들 정도다.

광양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7건 발생했던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올해에는 4배가 넘는 30건에 달했다. 여수도 살인(5건), 강간·강제추행(64건), 절도(687건) 등이 전년도 상반기 발생 건수를 웃돌았고 순천도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사건이 지난해 상반기 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안전행정부 가 최근 실시한 국민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에서 일반 국민 중 24.2%만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 여성의 3분의 2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성폭력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경찰의 휴가철 성범죄 예방 등 강도높은 치안 예방 활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 새벽 3시40분 광주 10차선 도로 한복판서 무승일이...
 사건의 개요 **시간** 2013년8월7일 새벽 3시40분~4시10분
장소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앞 사거리
상황 SM5 승용차 신호바뀌어도 출발 안해-행인이 경찰·119에 신고
 한심한 경찰 ① 30대 男 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113% 상태에서 수완지구로 가던 중 도로에서 잠들 ② 119구조대와 경찰은 차량 못 열고 30분간 창문 두드리며 사진만 찍어 ③ 지나가던 견인차량 기사가 차문 열어 경찰에 인계

새벽 10차선 한복판서 만취 운전자 '쿨쿨' 경찰, 30분간 창문만 두드렸다

새벽 10차선 한복판서 만취 운전자 '쿨쿨' 경찰, 30분간 창문만 두드렸다

광주 광천터미널 앞 사거리

30대 운전자가 새벽에 대로에서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

행인이 이를 소방서와 경찰에 각각 신고했고, 5분 만에 경찰과 119구조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이들은 30분 동안 차량만을 두드렸을 뿐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행인이 인근에서 신호대기중이던 견인차를 발견, 견인차 기사의 도움으로 차문을 열었다.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 기댄 채,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일 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운전자가 심장이나 뇌 이상으로 쓰러진 경우라면 어땠을까? 1분초

를 다루는 응급상황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깨우기 위해 차창만을 두드렸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하다.

행인 이모(46)씨는 7일 새벽 3시40분 광주시 서구 광천사거리 밝은광주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이들은 30분 동안 차량만을 두드렸을 뿐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행인이 인근에서 신호대기중이던 견인차를 발견, 견인차 기사의 도움으로 차문을 열었다.

서부소방서 119 구급대가 5분 뒤 도착한 데 이어, 서부경찰서 동천파출소 경찰관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은 운전석 문을 열려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119구급대는 고유 업무가 아니어서 동부소방서 구급구조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이 경찰관들은 승용차 문을 두드리며 운전자를 깨웠다.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긴급구조대도 노력은 했으나 차문은 열지 못했다.

경찰이 출동한 지 30분이 지난 새벽 4시10분, 현장을 계속 지켜보던 이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견인차를 발견, 경찰관에게 이를 말했고 경찰관이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경찰관들이 최선을 기울여 응급처치를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13% 상태였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긴급상황이 아니라 강제로 차문을 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넘어져 뇌사... 70대 여성 숨져

지하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뒤 뇌사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임모(여·77)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께 서구 양동 지하철역 4번 출

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뒤 같은 날 정오 갑자기 쓰러져 광주 모 대학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S병원으로 옮겨졌다.

양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임씨는 당시 지하철역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숨진 임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다는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수은화장품' 유통 4명 입건

여수해양경찰은 7일 기준치를 크게 넘는 수은이 함유돼 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이모(59)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펠라 닌트리트먼트 크림을 구입, 부산 국제시장 화장품 판매상인 정모(여·51)씨 등 다수에게 1통당 4만원씩 각각 30~50통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뺨 때린 오빠 경찰에 신고한 여동생

○평소 컴퓨터 게임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여동생의 뺨을 때린 오빠가 여동생의 신고로 경찰서행.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양모(21)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A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여동생(19)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여동생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 매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야단쳤으나 대들자 순간 화가 나 손찌검을 했는데, 경찰은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양씨를 검거.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뉘싯배 타고 망망대해 표류

영광서 남녀 6명 기관고장... 18시간만에 '구사일생'

휴대전화도 없이 어선을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간 펜션 투숙객 6명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다.

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오에 영광 염산면 한 선착장에서 인근 펜션 투숙객 이모(34)

씨 등 6명이 1.91t급 뉘싯 배를 빌려 타고 출항했다.

서울·경기도 등지에서 온 이들은 부부·연인 사이였다. 펜션 주인은 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없자 이날 밤 8시30분께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항공기 2대·경비정 10척·순찰정 2척·잠수요원 9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밤색 수색작업을 벌였다. 밤색 망망대해를 표류하던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5시50분께 영광군 흥농읍 계마항 북서쪽 5km 해상에서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어선에 발견됐다.

이들은 항해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지만 모두 휴대전화도 없어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건강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Q등급 시험 성적서 위조 원전납품비리 업자 구속

광주지검

광주지검이 원전 납품비리와 관련 최근 큐(Q)등급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기 등)로 업자 A씨를 구속했다.

7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원전 납품

비리 사건 수사를 배당받은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응석)에 따르면 A씨는 Q등급에 해당하는 원전 부품 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Q등급은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전 장애를 직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 등급으로 해당 부품은 원전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광주지검은 광주·전남에 있는 5개 업체를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어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원전 부품 비리와 관련 전국 7개 검찰청에서 A씨를 포함 2명을 구속하고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② 전 형 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④ 등 록 기 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
	석사	신 학 과(Th.M.)	○	구역,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석사	신 학 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3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